

韓國의 嬰幼兒死亡에 관한 研究

— 第一次 分析資料 —

Infant and Childhood Mortality in Korea

1980

HB1482.5
약 443 c.2

家族計劃研究院

목 차

1. 서 론	1
2. 영유아 사망율 추이	3
3. 출생아 및 부모의 특성별 차이 영유아 사망율	5
1) 출생시 모의 연령별 영유아 사망율	5
2) 출생순위별 영유아 사망율	6
3) 출생시 계절별 사망율	9
4) 출생아의 성별 영유아 사망율	9
5) 부모의 현거주지별 영유아 사망율	11
6) 부모의 교육수준별 영유아 사망율	12
7) 부모의 취업경험, 직업 및 생활환경 정도별 영유아 사망율	14
8) 영아 사망경험별 영아 사망율	15
9) 제 특성별 영아사망 경험율	16
4. 영아 사망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18
1) 영아사망과 출생간격	18
2) 영아사망과 출산아 진도비	21
3) 영아사망과 출산력 수준	24



5. 요약 및 결론	25
1) 영유아 사망율 추이	25
2) 차이 영유아 사망율	26
3) 영아사망과 출산력	28

참고문헌

1. 서 론

일반사망율에서 영유아의 사망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영유아의 사망율 변동은 곧 평균수명의 연장과 인구성장에 직접적인 영향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영유아의 사망율 수준은 한 사회의 경제, 문화 및 보건수준을 반영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영유아 사망관계 조사연구는 인구조절정책의 우선목표가 출산력저하에 초점이 있는 만큼 출산력관계 조사연구만큼 활발한 진척이 이루어지지 못한 감이 있다. 영유아 사망에 관하여 비교적 규모가 컸던 기존 조사연구로는 박 (1962, 전국농촌대상), 윤 (1968 전북 개정), 원 (1963, 서울), 이 (1968, 전남 남원), 권 (1965, 서울) 등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조사연구도 대부분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쳤다. 최근에는 가족계획연구원에서 그동안 실시해온 전국 출산력조사중 임신력 기록자료를 토대로 김 (1976, 1971년조사), 박 (1979, 1971년조사), 최 (1977, 1974년조사), 한 (1979, 1974년조사), 박 (1980 1974년조사) 등의 연구가 있으나 영유아사망에 관한 단편적인 내용분석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즉, 일반사망율의 한 부분으로 간략하게 취급하였거나 영아사망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이 중점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영유아 사망율수준의 측정과 그 변동추세를

고찰하고, 영유아사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출생아 및 부모의 특성별 차이영유아 사망율을 파악하며, 영아사망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등을 검토함으로써 영유아 사망에 관한 집중적인 분석을 목적으로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조사연구 자료의 총괄적인 검토와 특히, 가장 최근의 자료인 1974년 및 1976년 자료를 중점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1976년 조사자료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 연구에 적합한 새로운 자료화일 작성과 임신력 자료의 재검토 관계로 목적인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하고 여기에서는 일차 분석된 기초자료만을 취급하였다. 본연구의 완전한 보고서는 현재 분석이 계속 진행중이므로 1981년초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영유아 사망을 추이

미국이나 일본처럼 사망신고 통계제도가 완전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확한 영유아 사망통계 자료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영유아 사망에 관한 기존 조사연구를 총괄하여 비교 검토함으로써 가능한 범위내에서 우리나라의 영유아 사망률 수준과 그 변동추세를 고찰하여 보았다.

표1, 도표1, 표2등을 보면 대체로 1935년까지 우리나라의 영아사망율은 출생아 1,000명당 200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6.25 동란이 있는 1950년대 초반까지도 약 150-200수준의 높은 영아 사망율을 보이다가 1950년대초에서 1950년대 후반까지 급격한 영아사망률 감소가 이루어져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된 1960년대 초에 약 60의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60년 이후 점차적인 영아사망률 감소가 계속되어 최근의 조사자료를 볼때 1970년 초의 영아사망율 수준은 약 40을 상회하는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영아사망율 수준이 20전후에 있는 것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영아 사망율은 높은 수준이다. 영아사망율을 신생아사망(여기서는 생후 1달이내의 사망)과 후기신생아 사망(생후 1달이상 1년이내의 사망)으로 구분하여 보면

신생아 사망보다 후기신생아 사망에서 더욱 큰 사망율의
저하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표3, 도표2 참조)

신생아사망율은 1950년에서 1970년대 초까지 약 70에
서 25의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후기신생아 사망율은 같은
기간동안에 약 90에서 15로 크게 저하하였다.

그러나 영아사망중 신생아 사망이 차지하는 비율이
70-80퍼센트를 보이는 미국등에 비교한다면 동 비율이 약
60퍼센트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후기
신생아 사망율 개선의 여지가 많은 편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영아사망과 마찬가지로 유아사망율 (여기에서는 영아
사망율 제외할 1세이상 5세미만의 사망율 취급)도 크게
저하되어 연평균 증감율로 1950년대초 출생아 1,000명당
20의 수준에서 1960년 이후 10미만으로 떨어져 1960년대
말 현재 약 5 정도의 수준에는 있으나 미국등 선진국이
1,000명당 1이하의 수준에 있음을 감안하면 아직도 높은
수준에 있다 하겠다.

3. 출생아 및 부모의 특성별 영유아 사망율

몇몇 선진국에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영유아의 사망은 생물학적인 요인과 사회, 경제, 문화적인 요인과 연관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모성의 생리적 여건, 출생시도의 연령, 소산아와 다산아 수유 여부 및 그 기간에 따라 영유아 사망에 차이를 나타내고, 사회, 경제, 문화적인 요인으로는 경제수준, 사회계층, 직업, 주택환경, 영양, 의료혜택 그리고 교육수준 등이 영아사망에 민감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나라의 경우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출생아 및 부모의 특성별로 영유아사망율을 검토함으로써 영아사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명하여 보기로 한다.

앞서 출생연도별 영유아 사망율의 점차적인 감소가 이루어졌던 것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이러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출생 코호트 그룹별로 나누어 출생아 및 부모의 특성별 영유아 사망율 차이를 검토하였다.

1) 출생시도의 연령별 영유아 사망율

표 4에서 출생시도의 연령별 영유아 사망율은 먼저 1974년 조사자료의 경우 1965-69년 출생코호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출생코호트에서 출생시도의 연령이 20세 미만, 또는 25세 미만의 저연령층

과 35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높은 영유아 사망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영아사망을 신생아 사망과 후기신생아 사망으로 구분해보면 후기신생아 사망율에서 보다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한편 유아사망의 경우는 출생시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그 사망율이 점차 떨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출생시모의 연령별 차이는 1976년 조사자료에서 좀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출생시모의 연령이 각 출생코호트에서 20세미만의 저연령층(표본수가 다소적긴 하지만) 과 30세 이상 또는 35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영아사망율이 일률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출생순위별 영유아 사망율

출생순위별 영유아 사망율의 차이는 다산아와 소산아수 차이에 의하여 영아사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일면을 말해준다. 표5에서 각 출생코호트별로 출생순위에 따른 영유아 사망율 차이를 고찰하였다.

1974년 조사에서 1955년 이전 출생아 및 1955-59년 출생아의 경우 영아사망율이 첫출생아에서 가장 높으며, 1960-64년 출생아의 경우는 네번째이상 출생아와 첫번째 출생아의 영아사망이 높다.

1976년 조사에서도 각 출생코호트별로 1974년 조사와 비슷한 현상을 보여주는데, 전반적으로 첫출생아 및 다섯번째 이상의 출생아에서 높은 영아사망율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두번째 및 세번째 출생아의 영아사망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신생아 사망율이나 후기신생아 사망율에서도 거의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유아사망율의 경우는 출생아간에 별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써 출생순위와 사망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출생후 1년이내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첫번째 출생아와 고위출생아의 신생아 및 영아사망율이 높은 이유는 생물학적 요인 또는 주위환경 등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에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연구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출생시 모의연령과 출생순위와는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앞서 출생시 모의연령별 영아사망율 차이와 출생순위별 영유아 사망율 차이는 서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출생순위별 영아사망율 차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표 6에서는 각 출생 '코호트'별 출생시 모의 연령별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1955년 이전 출생아의 경우 출생시 모의 연령이 20세미만의 저 연령층일때, 1974년 및 1976년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첫째 출생아보다 둘째이상의 출생아에서 높은 영아사망율을 보이고 있다.

1955-64년 출생아의 경우는 출생시 모의연령이 30세이상 연령층이고 출생순위가 높을때 비교적 높은 영아사망율을 보이고 있다. 출생시 모의연령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특히 낮은 영아사망율을 보였던 25-29세 연령층의 경우 영아사망율은 다섯째이상의 고위 출생아에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첫째출생아 및 넷째출생아에서 높은 영아사망율을 보여준다. 따라서 출생시 모의연령이 동일 집단일때도 출생순위에 따른 영아사망율 차이는 앞서 표 5에서 보여주었던 결과와 비슷하여 출생순위에 따라 영아사망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다시 입증하고 있다. 유아사망율의 경우 출생시 모의연령이 동일집단일때 고출생순위로 갈수록 대체로 높은 사망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65년 이후 출생아의 경우 출생시 모의연령이 20-25세 연령층이고 출생순위가 세째이상일때 특히 높은 영아사망율을 보임으로써 1955년 이전 출생아에서 보여준 바와같이 출생시 모의연령이 저연령층이고 고출생순위 출생아일때 영아사망율이 높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30-34세의 고연령층에서는 출생순위가 첫째, 둘째, 또는 셋째의 비교적 저출생순위일때 오히려 고출생순위일때보다 더높게 나타나고 있다.

3) 출생시 계절별 영유아 사망율

표 7에서는 출생시 계절이 영유아사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고찰하였다.

1974년조사와 1976년조사를 비교할때 먼저 1955년 이전 출생아의 경우 영아사망율에서는 특정 계절에서 공통적으로 높거나 낮은 현상을 찾아보기 힘들다. 유아사망율의 경우 3-5월 및 9-11월의 봄, 가을이 두 조사에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1955-64년 출생아의 경우 3-5월이 두 조사에서 모두 가장 높은 영아사망율을 보이고 있음이 주목되며, 1965년 이후 출생아의 경우도 3-5월의 영아사망율이 대체로 높은 편이다. 출생시 계절별로 그다지 뚜렷한 영유아 사망율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으나 대체로 3-5월 영유아 사망율이 높다는 사실이 흥미있는 과제로 하겠다.

4) 출생아의 성별 영유아 사망율

일반적으로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의 평균수명보다 길며 (우리나라의 경우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약 4세정도 더 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곧 남자의 일반사망율이 여자의 그것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유아사망의 경우도 대체로 여자보다 남자의 사망율이 더 높은 것으로 외국의 여러 연구 결과는 보고하고 있다. 표 8-1에서 성별 영유아 사망율을 보면 1974년 및 1974년 조사결과 거의 모든 출생코호트에서 출생아가 남아일때의 영아사망율이 여아일때의 영아 사망율 보다 높게 나타나며, 특히 신생아 사망율에서 남아의 사망율이 여아의 사망율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영아사망중에서도 후기신생아 사망율에서는 남아와 여아간에 별로 사망율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여아의 사망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아 사망율의 경우도 남아와 여아간에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후기신생아 및 유아의 사망율은 미국의 예를 들면 후기신생아 사망율이 1950년 남아 8.0, 여아 6.7, 1960년 남아 6.3, 여아 4.9이며, 유아사망율은 1950년 남아 1.5, 여아 1.3, 1960년 남아 1.2, 여아 1.0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¹⁾ 후기신생아 및 유아사망이 주위환경이나 영유아의 건강관리등에 주로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

1) SAM SHAPIRO/EDWARD R. SCHLESINGER/ROBERT E. L. NESBITT, JR, Infant, Perinatal, Maternal, and Childhood Mortality in the United Stat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인 남아선호사상이 지배하여온 영유아 출생후 영아의 건강관리면등에서 남아보다 여아를 덜 소중히 취급해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연구와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될 흥미있는 과제로 생각되며, 본 자료 단으로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출생아의 성별 영아사망율을 좀더 구체적으로 출생 순위별로 구분한 표8-2를 보면 대체로 앞의 결과와 비슷하다. 단지 둘째-셋째 출생아에서는 남아의 후기신생아 사망율이 여아보다 높지만 다섯째 이상의 고위 출생아에서는 남아의 후기신생아 사망율이 여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다.

5) 부모의 현 거주지별 영유아 사망율

과거 영유아 사망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 도시와 농촌간에 영유아 사망율의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9는 출생년도별 거주지별 영유아 사망율을 제시한 것이다. 가장 최근 출생년도인 1970-74년 코호트를 제외하고는 거주지별로 영유아사망에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지가 출생아의 출생당시 부모의 거주지가 아니고 부모의 현재 거주지임으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의 거주지별 영유아 사망율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1970-74년

출생코호트만을 볼 때 거주지별 비교적 뚜렷한 영아사망율 차이를 보여 출생아 1,000명당 영아사망율이 대도시 약 27, 기타 도시 약 32, 농촌 약 43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영아사망율 차이는 세분하여 보았을 때 후기신생아 사망율에서 특히 도시와 농촌간의 큰 차이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도시와 농촌의 의료혜택 등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도시와 농촌의 교육수준의 차이등이 이러한 결과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 부모의 교육수준별 영유아 사망율

부모의 교육수준은 곧 영유아 사망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표 10-1에서 출생년도 및 부모의 교육정도별 영유아 사망율에서 각 출생코호트 그룹별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영유아 사망율이, 부모의 교육정도가 무학일 경우 약 50, 국민학교일 경우 약 43, 중학교일 경우 34, 고등학교 이상일 경우 약 30등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같은 코호트에서 부모의 교육정도가 국민학교 이하일 경우 약 48, 중학교일 경우 약 34, 고등학교일 경우 약 40, 대학이상일 경우 약 33등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의 교육정도별 영아사망율 차이는 부모의 교육정도에서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교육정도별 영아사망율 차이는 신생아 및 후기 신생아 사망율로 세분 하였을 때 1965-74년 출생 코호트를 보면 교육정도별로 신생아 사망율의 차이보다는 후기 신생아 사망율의 차이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모의 교육정도가 무학 및 국민학교 일제의 후기 신생아 사망율 약 21 및 15에 불과하여 모의 교육정도가 중학교 및 고등학교 이상일 때는 그 절반인 약 10 및 8에 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유아사망율을 보았을 때도 1965-69년 출생아 그룹에서 모의 교육이 국민학교 이하의 약 5이상에서 중학교 이상에서는 약 2 정도로 낮게 나타난다. 다시말해 부모의 교육정도 차이는 특히 후기 신생아 및 유아사망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

표 10-2에서는 모의 교육정도별 영유아 사망율 차이를 거주지별로 세분 하였는데 도시의 경우 교육정도별로 영유아 사망율의 뚜렷한 차이를 보여 1965-74년 출생코호트에서 모의 교육이 무학일 경우 약 64에서 고등학교 이상일 경우 약 26에 불과하여 거주지별로도 역시 교육정도별 영유아 사망율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촌의 경우 도시만큼 교육정도별 영유아 사망율 차이가 뚜렷하지는 않으나 후기 신생아 사망율 및

유아사망율에서 각기 뚜렷한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거주지별로 보았을 때도 역시 앞의 표 10-1과 같은 교육
 정도별 영유아 사망율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교육정도별로 출산아수에 차이가 있을 것
 으로 생각되므로 교육정도별 영유아 사망율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출생순위별로 나누어보면 표 10-3과 같
 다. 출생순위별로 영유아 사망율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각 출생순위별로 다시 교육정도를
 구분하였을 때도 거의 모든 경우에 역시 영아사망율의
 차이를 보임으로써 교육정도별 영아사망율 차이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7) 부모의 취업경험, 직업 및 생활환경 정보별 영유아 사망율

표 11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결혼전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영아사망율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특히 첫번째 출생아의 경우 그 차이가 뚜렷하여 결혼
 전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영아사망율이
 1955년 이전 출생아에서 각각 119 및 105, 1955-64년에
 서 각각 62 및 46, 1965-74년에서 각각 41 및 28등으로
 나타난다. 교육정도 및 거주지별 차이에서와는 달리
 후기신생아보다 신생아 사망율의 차이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주목되는 특이한 현상이라 하겠다.

부의 직업의 경우 출산 당시의 직업과 현재 직업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직업별 차이는 또한 교육정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표 12에서 부의 직업별 영유아 사망율을 보면 전반적으로 전문기술 및 행정관리 등의 사무직일 경우에 영유아 사망율이 거의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판매 및 생산 관련 노동직과 농어업의 경우는 비슷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3에서는 조사당시 각 가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문화기구 개수를 생활정도를 반영하는 하나의 변수로 선정하여, 조사된 14개 문화기구중 3개 이하를 소유했을때는 하; 4—7개를 소유했을 때 중; 8개 이상일때 상으로 구분하여 영유아 사망율을 고찰하였다. 비교적 최근 출생 코호트인 1965—69년 및 1970—74년을 볼 때 문화기구 소유갯수 상, 중, 하별로 영유아 사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후기신생아 사망율 및 유아사망율에서 그 차이가 좀 더 뚜렷하다.

2) 영아사망경험별 영아사망율

영아사망을 한번 경험한 부인일수록 또 다른 영아사망을 경험하기 쉬울거라는 관점에서 반복 영아사망경험을 표 14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출생순위별로 볼 때 첫째 출생아가 영아사망이었을때와 영아사망이 아니었을때의 둘째출생아의 영아사망율이 1955년 출생군에서 각각 84 및 204, 1955—59년 출생군에서

각각 48 및 123, 1960-64년 출생군에서 각각 47 및 83, 1965-69년 출생군에서 각각 35 및 143, 1970-74년 출생군에서 각각 34 및 50 등으로 두 그룹간에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셋째 출생아의 영아사망율도 셋째 출생아 이전까지 영아사망을 경험하였을 경우가 경험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각 출생코호트별로 훨씬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은 넷째, 다섯째 및 여섯번째 출생아에서도 거의 동일한 현상을 보인다.

영아사망경험은 곧 후속출생아의 영아사망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반복영아사망경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특성분석과 원인규명이 이루어진다면 영아사망을 개선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 제 특성별 영아사망 경험율

지금까지 출생아 및 부모의 특성에 따른 차이 영유아사망을 고찰하여 보았다.

앞서 표 14의 결과에서 반복 영아사망경험이 많으므로 이 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표 15에서는 출생아가 아닌 부인단위로 영아사망 경험율(1회이상 영아사망경험)을 살펴 보았다.

먼저 부인의 현재 연령을 보면 출생아수가 2명 이하인 경우 40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높은 영아사망 경험율을 보이고 있으며, 간대로 3명 이상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의

경우는 30세미만의 저 연령층에서 높은 영아사망경험율을 보이고 있다.

초혼연령별로 보면 출생아가 3명 이하인 경우는 20—24세 사이에 결혼한 부인의 영아사망경험율이 가장 낮지만 출생아수가 4명, 5명일 경우는 25세 이상 늦게 결혼한 부인의 영아사망경험율이 가장 높고 20—24세 사이에 결혼한 부인이 그 다음으로 높은 편이다.

출생아수가 6명 이상일 경우는 25세 이상 늦게 결혼부인의 영아사망경험율이 가장 높고, 그 외는 비슷하다. 임신소모 경험(인공유산, 자연유산, 사산 등) 여부별로는 출생아수가 4명까지는 임신소모를 경험하지 않은 부인이 경험한 부인보다 영아사망경험율이 약간 높지만 출생아수가 5명 이상일 경우에는 임신소모를 경험한 부인의 영아사망 경험율이 훨씬 높다.

부인의 교육정도별로는 출생아수가 3명까지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영아사망율이 낮은 편이나 그것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이상 간에는 영아사망 경험율의 차이가 별로 없다. 더구나 출생아수가 4명 이상일 경우 교육수준별 영아사망 경험율 차이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는 앞에서 출생아수별로 모의 교육정도별 영아사망율에서 보여준 차이와는 대조적인 것으로 여기에서는 반복 영아사망 경험이 무시된 것을 감안할 때 저 교육수준층에서 반복 영아사망 경험이 많은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결혼전 취업경험여부별 영아사망

경험율에서는 출생아가 2명이하일 때에는 결혼전 취업경험이 있는 부인의 영아사망경험율이 높으나 출생아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남편의 직업별 영아사망경험율은 출생아수가 4명이하일 때까지는 남편의 직업이 전문기술 및 행정관리 등의 사무직 일 경우 비교적 영아사망경험율이 낮은편이나 출생아수가 6명 이상일 때는 별로 차이가 없다.

이상의 결과는 앞서 차이 영유아 사망률 결과와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영아사망율이 높은 특성군에서는 반복영아 사망경험이 많은 것으로 풀이될 수 있겠다.

4. 영아사망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영아사망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은 박(1979, 1971년 조사자료)의 연구에서 출산간격 분석, 출산아 진도비 분석 그밖에 다분류분석법 등을 통하여 깊이 다루어진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76년 조사에 의하여 영아사망 경험여부 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영아사망이 후속 출산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거 연구결과를 재 확인하는 의미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1) 영아사망과 출산간격

결혼연령, 부모의 생리적 여건, 피임실천행위 등 출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 조건이 동일하다면 출산간격이 짧을수록 상대적으로 잠재 출산력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출생간격의 단축에는 여러가지 영향 요인이 내재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출생순위별로 이전 출생아가 영아사망이었을 경우와 최소 1년이상 생존하였을 경우로 구분하였을 때 다음출생까지의 출생간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구명하여 보기로 한다.

표 16에서 첫째에서 여섯째 출생까지 평균 출생간격이 영아사망과 영아생존 두 그룹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출생년도별로 보면 1955년 이전 출생아의 경우 평균 출생간격이 영아사망과 영아생존간에 10.8개월의 차이를 보이며, 1955-64년 출생아에서는 9.3개월, 1965-74년 출생아에서는 8.4개월등의 차이를 나타낸다. 최근 출생 코호트로 올수록 영아사망과 영아 생존간의 출생간격 차이가 약간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최근 출생코호트로 오면서 모든 출생간격이 점차 짧아지고 있는 경향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각 출생순위별 출생간격마다 영아사망과 영아생존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17은 영아사망이 출생간격에 주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하여 바로 이전의 두 출생아의 영아사망 여부에 따른 출생간격 차이를 고찰하였다.

출생년도별 출생순위별로 보면 둘째출생아와 셋째 출생아 사이의 간격은 1955년 이전 출생일 경우 바로 이전 두 출생아인 첫째 출생아와 둘째 출생아가 모두 영아사망이었을 경우

가 출생간격이 가장 짧고, 첫째 출생아는 생존이고 둘째 출생아가 사망일 경우가 그 다음으로 출생간격이 짧으며, 첫째 출생아가 영아사망이고 둘째 출생아가 영아 생존일 경우 다시 그 다음으로 짧게 나타난다. 1955—64년 및 1965—74년 출생아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이러한 차이는 거의 모든 출생순위와, 출생년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바로 이전 두 출생아가 모두 영아사망일 경우의 출생간격이 가장 짧고 바로이전 두 출생아중 하나가 영아사망일 경우 둘다 영아 생존일 경우보다 출생간격이 짧게 나타나는데 하나가 영아사망일 경우도 나중 출생아가 영아사망일 때 더욱 짧은 출생간격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태울 조절을 위한 피임실천이 비교적 낮은 비중이므로 (본 연구자료인 1976년 조사에서 피임 현재 실천부인중 15퍼센트가, 30세미만 젊은 부인층에서는 약30퍼센트가 태울 조절을 위한 피임실천이었음) 영아생존 여부에 따른 출생간격 차이는 태울 조절 피임실천보다는 영아 사망으로 인한 일반적인 수유기간의 단축(산후 무월경 기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2) 영아사망과 출산아 진도비

영아사망은 출산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며 영아사망은 곧 후속출생력, 즉 출산아 진도비(Parity Progression Ratio)을 높게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8의 출산아 진도율을 보면 1955년 이전 출생아에서 영아생존일 경우 97퍼센트, 영아사망일 경우 98퍼센트가 다음 아이를 가질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1955-64년 출생아에서는 영아생존의 경우 69퍼센트, 영아사망의 경우 88퍼센트로서 최근 출생 코호트로 올수록 영아생존일 경우의 다음아이로 넘어가는 출산아 진도비율과 영아사망일 경우의 출산아 진도비율간에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전체적으로 영아사망일 경우의 출산아 진도율이 영아 생존이 있을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각 출생순위별로 고찰하여 보았을 때 1955년 이전 출생아의 경우 두 그룹간의 출산아 진도율에 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전체적으로 출산아 진도율이 크게 높다) 1955-64년 출생아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아까지의 영아 생존 여부에 따른 출산아 진도율에 큰 차이가 없으나 넷째 출생아의 영아생존 여부에 따른 출산아 진도율과 다섯째 출생아의 영아생존 여부에 따른 출산아 진도율에서는 각각 두 그룹간에 큰 차이를 보임으로서 영아사망시 출산력 증대를 가져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1965-74년 출생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모든 출생순위에서 영아사망일 때의 다음출생아를 가질려는 출산아 진도비율이 크게 높다.

일찍로 넷째 아이가 영아 생존일 경우 다음 아이인 다섯째로 이행하는 출산아 진도율이 약 절반인 50퍼센트 정도이나 넷째아이가 영아사망일 경우는 출산아 진도율이 80퍼센트에 달하고 있다.

영아생존 여부에 의한 출산아 진도율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바로 이전 두 출생아의 영아생존 여부에 따른 출산아 진도율 차이를 보면 표19와 같다.

1955년 출생아의 경우 높은 출산력의 영향으로 다음 출생아도 넘어가기 이전 두 출생아의 영아생존 여부별 출산아 진도율 차이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모든 출산아 진도율이 95퍼센트로 이상으로 높다.

1955-64년 출생아에서도 거의 모든 경우에 이와 비슷하게 높은 출산아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나 넷째 출생아에서 다섯째로 이행하는 출산아 진도율 및 다섯째에서 여섯째로 이행하는 출산아 진도율이 다섯째 및 여섯째로 이행하기전 ... 두 출생아 즉 셋째 및 넷째와 넷째 및 다섯째 출생아의 영아생존 여부를 볼 때 둘다 영아생존일 경우는 90퍼센트 이하(84퍼센트 및 77퍼센트)를 보이고 있으나 둘중 하나 이상이 영아사망일 경우는 모두 90퍼센트 이상의 높은 출산아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출생순위별 출산아 진도율 차이가 비교적 심한 1965-74년

출생아의 경우를 보면 둘째 출생아에서의 출산아 진도율 (둘째 출생아에서 셋째 출생아로 넘어가는 비율)이 두출생아(첫째 및 둘째 출생아)의 영아생존 여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출산진도율이 둘다 영아생존일 경우 72퍼센트, 하나가 영아사망일 경우는 먼저 출생아가 영아사망일 때 91퍼센트, 나중 출생아가 영아사망일 경우 96퍼센트, 둘다 영아사망일 경우는 100퍼센트로 둘다 영아사망일 때 출산아 진도율이 가장 높고 하나가 영아사망일 때 특히 나중 출생아가 영아사망일 때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셋째 출생아의 출산아 진도율 및 넷째, 다섯째의 출산아 진도율에서도 거의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다섯째 출생아의 출산아 진도율은 둘다 영아생존일 경우 49퍼센트에 비하여 둘중 먼저 출생아가 영아사망일 경우 58퍼센트, 둘중 나중 출생아가 영아사망일 경우 70퍼센트, 둘다 영아사망일 경우 100퍼센트등으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영아사망이 출산아 진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면 i 번째 출생아에서 $i+1$ 번째 출생아로 넘어가는 출산아 진도비율은 i 번째 출생아의 영아생존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i-1$ 번째 출생아의 영아생존 여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 번째와 $i-1$ 번째 출생아 둘다 영아사망일 경우

출산아 진도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i 번째 출생이 영아사망일 경우가 다음으로 높고, $i-1$ 번째 출생이 영아사망일 경우가 그 다음 순 등으로 i 및 $i-1$ 번째 출생아 둘다 영아 생존인 경우에 비하여 뚜렷하게 높은 출산아 진도비율을 보인다 하겠다.

3) 영아사망과 출산력수준

영아사망여부별 출산간격과 출산아 진도비율 차이를 고찰함으로써 영아사망은 상대적으로 출산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보았다.

표 20에서는 영아사망을 경험한 부인과 경험하지 않은 부인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이들의 평균 생존자녀수, 평균출생자녀수, 평균 임신수등을 비교하였다.

먼저 평균 출생자녀수의 경우 영아사망을 경험하지 않은 부인이 5.2명인데 비하여 영아사망을 경험한 부인이 3.4명으로 거의 2명에 가까운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부인의 현재 연령별로 구분하였을 때 영아사망 경험 부인과 비경험 부인간에 각 연령층별로 거의 모두 1명 이상의 평균출생아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균생존자녀의 경우 영아사망을 경험한 부인과 경험하지 않은 부인간에 출생아수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큰 차이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약 0.7명의 차이를 나타내며 각 연령층별

로도 영아사망을 경험한 부인이 약간씩 더 많은 평균 생존 자녀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영아사망의 시기(영아사망시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영아사망을 경험한 부인의 생존자녀수가 영아사망을 경험하지 않은 부인의 생존자녀수보다 최소한 적지는 않다는 사실에 비추어 영아사망을 경험한 부인의 출생아의 생존에 대한 우려가 많은 출생아내지 생존 자녀수를 가져오게 한 것으로 놀이된다. 다시말해 영아사망이 두속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은 출산간격, 출산아 진도비율, 그리고 출산력 수준비교를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아사망을 경험한 부인과 경험하지 않은 부인의 총 임신수 비교에서도 평균 출생아 수 비교에서 보여준 이상의 큰 차이를 나타냄으로서 앞에서 임신소모 경험이 많은 부인의 영아사망 경험율이 높았던 사실을 볼 수 있다.

5. 요약 및 결론

1) 영유아 사망을 추이

영유아 사망에 관한 과거 조사연구를 비교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영아사망율은 해방전의 200이상의 높은율에서 해방후 1950년대 후반까지 영아사망율이 추계 저하되어 왔으며, 1960년초 약60의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 이후 점진적인 저하 추세가 계속되어 1970년초 약40의 수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선진외국의 영아사망율 수준이 20전후인것을 비교

하여 볼 때 아직도 계속적인 영아사망을 저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아사망율이 극히 낮은 선진국의 경우 영아사망율중 후기 신생아 사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30퍼센트에 불과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동 비율이 40퍼센트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하여 후기 신생아 사망율에서 많은 개선의 여지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아사망율의 경우도 1960년 이후 출생아 1,000명당 연평균 약5—10수준으로 떨어지긴 하였으나(1960년말 약5) 영아사망율 수준에 비교할 때 오히려 높은편으로 유아사망율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즉 생물학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신생아 사망율보다 건강관리 및 주위환경 요인의 영향이 많은 후기 신생아 사망율 및 유아사망율 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개선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의료혜택의 개선, 특히 농촌지역의 의료시설 및 기술보급과 영아 및 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식의 보급등이 촉진됨으로써 영유아 사망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차이 영유아 사망율

출생아 및 부모의 특성별 차이 영유아 사망율을 고찰한 결과 출생시 모의 연령, 출생순위, 부모의 교육수준등이 영유아 사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출생시 모의 연령별 영유아 사망율을 보면 20세미만 출생아

의 영유아 사망율이 가장 높고, 또한 35세 이상의 고연령층 출생아의 영유아 사망율도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생시 모의 연령이 25—29세인 경우가 가장 낮은 영유아 사망율을 보인다.

출생순위별 영유아 사망율은 대체로 다섯째 이상에서 가장 높은 사망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첫째 출생아의 영유아 사망율이 높은 편이다. 반면 둘째 및 셋째 출생아의 영유아 사망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성별 영유아 사망율의 경우 출생아가 남아일때가 여아보다 대체로 높은 영아사망율을 보이고 있으나 영아사망증에서도 후기 신생아 사망의 경우 남아보다 여아의 사망율이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유아사망율에서는 오히려 여아의 사망율이 약간 높은 편이다. 즉, 후기신생아 및 유아사망율이 건강관리나 주위 환경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부모의 특성별로는 교육수준별로 영유아사망율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후기 신생아 및 유아사망율에 있어서 교육수준별로 더욱 뚜렷한 차이를 보임으로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후기 신생아 및 유아사망율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다시 강조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밖에 모의 결혼전 취업, 부의 직업, 생활환경등에 따라서도 영유아 사망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반복 영아사망 경험이 많다는 사실이 주목되는데 일반적으로 높은 영아사망율을 보이고 있는 특성군에서 이러한 반복 영아사망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반복 영아사망 경험을 줄일 수 있을때 영아사망은 크게 저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위 출생아의 영아사망율이 높음을 볼 때 다산억제를 위한 피임실천은 출산력 저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아사망율 저하를 위해서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3) 영아사망과 출산력

차이 영유아 사망율 고찰을 통하여 출산력 저하가 영유아 사망율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영아사망율이 후속 출산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가를 살펴 보았을 때 출산아 진도비를 보면 영아사망일 경우가 영아사망이 아니었을때 보다 거의 모든 출생아 순위에서 다음 출생아로 넘어가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사망을 경험한 부인과 경험하지 않은 부인간의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였을 때 영아사망을 경험한 부인의 출산력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결국 높은 영아사망력의 높은 출산력을 유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영아사망율 개선은 곧 저 출산력 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생각되며 영아사망율 개선없이 출산력 저하만을 기대 할 수는 없을 것이다.

Table 1. Trend of Infant Mortality Rate Per 1,000 Live Births

Year	Infant mortality rate (per 1,000 L.B)	Base (# of live births)	Investigator	Remarks
-1917	350*	20,454	Van Buskuk	전국
1921-25	254		이 각 종	경성 계출 자료
1926-30	234		이 각 종	"
1926-30	242		수 도 치 부	"
1931-34	183		홍 중 진	"
1931-35	203		최 희 영	"
1938-42	118	275,464		전국 계출 자료
1941-45	150	1,595	1971 조 사	전국
1943-47	171	140	윤 덕 진	전북 계정
1944-48	166	1,340	윤 덕 진	전북 계정
1945-49	166	937	1974 WFS	전국
1945-49	153	555	1976 조 사	전국
1946-50	132	2,793	1971 조 사	전국
1948-52	164	159	윤 덕 진	전북 계정
1949-53	97	1,556	윤 덕 진	전북 계정
1950-54	109	1,668	1974 WFS	전국
1950-54	85	1,397	1976 조 사	전국
1951-55	79	3,616	1971 조 사	전국

Table 1. (Continued)

Year	Infant mortality rate (per 1,000 L.B)	Base (# of live births)	Investigator	Remarks
1952-57	125	Unknown	허 정	경기도 4 개 지역
1954-59	83	14,325	박형종	전국 농촌
1955-59	60	3,156	1974 WFS	전국
1955-59	62	3,060	1976 조사	전국
1956-60	64	5,372	1971 조사	전국
1956-60	64	1,988	윤덕진	농촌
1958-62	27	24,274	원명수	서울 중구, 종로구
1960-64	59	4,286	1974 WFS	전국
1960-64	55	4,378	1976 조사	전국
1961-65	60	5,623	1971 조사	전국
1961-65	60	5,625	이상재	전남 남원
1961-65	45	1,353	김경식	전북 임실
1961-65	60	434	김경식	전북 고군산도
1961-65	24	1,564	이영춘	전북 계정
1962	108	5,174	권이혁 외	서울 영세민 지역
1962-64	36	9,455	권이혁 외	서울 성동구
1963	68	1,375	박형종	농촌
1966-67	32	2,854	권이혁	서울

Table 1. (Continued)

Year	Infant mortality rate (per 1,000 L.B)	Base (# of live births)	Investigator	Remarks
1966-68	39	676	이영춘	전북 계정
1965-69	50	4,607	1974 WFS	전국
1965-69	46	4,885	1976 조사	전국
1967	63	5,952	허인무	농촌
1966-70	50	5,314	1971 조사	전국
1966-70	52	4,703	1974 WFS	전국
1970	42	2,083	이성관	농촌
1970-72	46	3,030	1974 WFS	전국
1970-74	36	5,147	1976 조사	전국

*보고치 232이나 1세-4세 사망에서의 추정치임.

Figure 1. Trend in Infant Mortality Rate Per 1,000 Live Birt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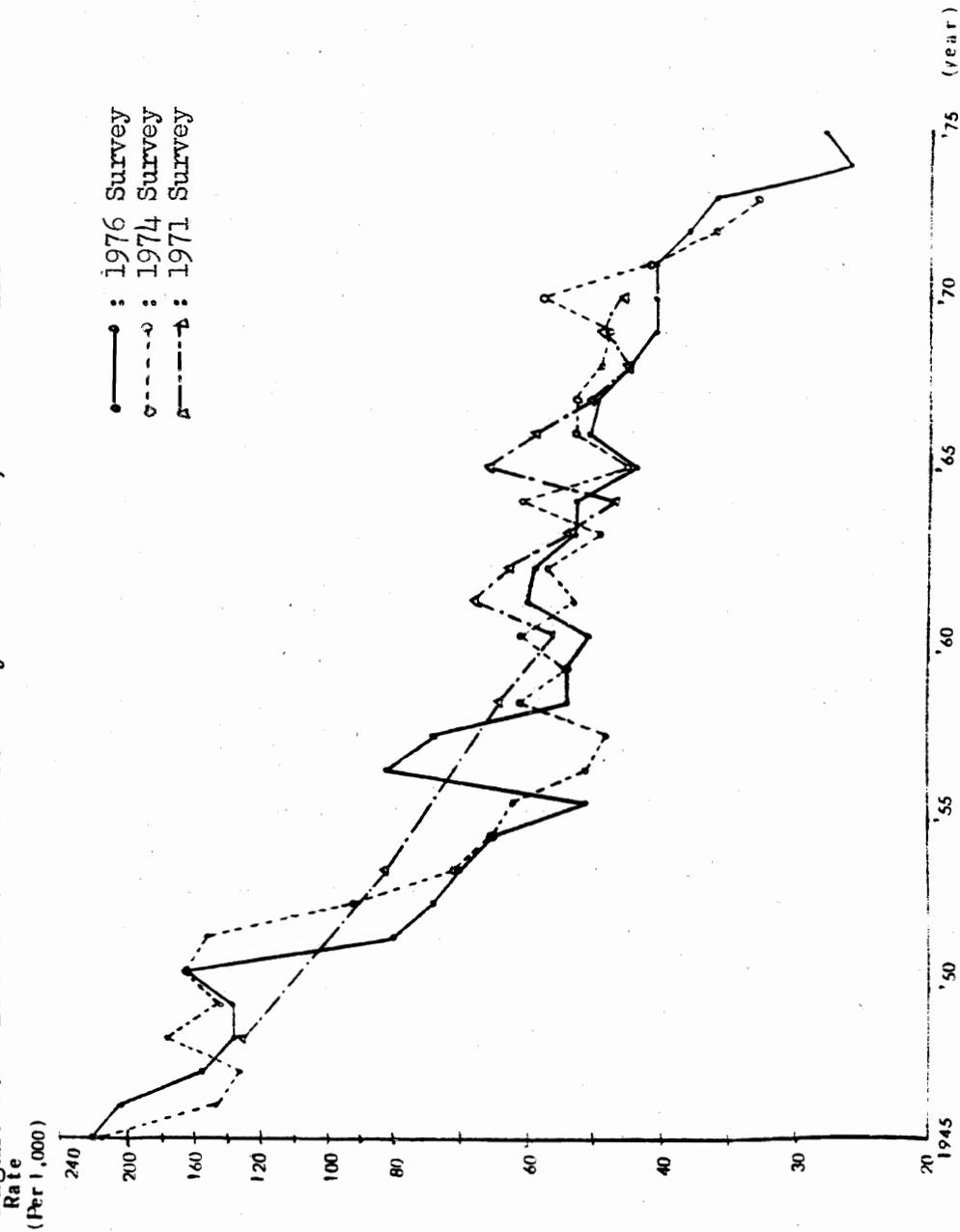


Table 2. Trend of Infant Mortality Rate from 1971, 1974 and 1976 Survey

Birth Year	Infant Mortality Rate (per 1,000)			Adjusted IMR*		
	1971 Survey	1974 WFS	1976 Survey	1971	1974	1976
1959	-	62.8	53.7	-	-	-
1960	55.6	59.6	51.4	-	58.3	55.2
1961	68.2	52.5	60.4	62.4	56.1	57.0
1962	63.4	56.3	59.3	61.8	52.4	57.7
1963	53.9	48.5	53.3	54.7	55.1	55.3
1964	46.9	60.4	53.3	55.5	51.4	50.2
1965	65.6	45.2	43.9	57.1	52.9	49.4
1966	58.9	53.0	51.1	58.4	50.3	48.5
1967	50.7	52.7	50.4	51.5	51.5	48.8
1968	45.0	48.9	45.0	48.2	49.9	45.6
1969	48.9	48.1	41.3	46.5	51.6	42.3
1970	45.5	57.8	40.6	-	49.2	41.0
1971	-	41.7	41.1	-	45.2	39.9
1972	-	36.2	38.0	-	36.9	38.2
1973	-	32.7	35.6	-	-	33.2
1974	-	-	26.0	-	-	29.7
1975	-	-	27.5	-	-	-

* 3년간격이동 평균법에 의한 영아사망율 합.

Table 3. Neonatal, Post-neonatal, Infant and Childhood Mortality Rate by Birth Year, 1974 and 1976 Survey

Year of Birth	No. of Deaths		Ratio (%)		Mortality Rate (per 1,000)		Childhood* Infant (1-4 yrs.)	
	Births	Neo-natal Post-neonatal	Childhood (1-4 yrs.)	Neonatal/ Infant	Neo-natal Post-neonatal	Infant (1-4 yrs.)		
1974 WFS								
1945-49	937	49	107	158	31.4	52.3	166.5	56.3
1950-54	1,668	50	132	118	27.5	30.0	109.1	20.7
1955-59	3,156	69	122	122	36.1	21.9	60.5	10.3
1960-64	4,286	117	134	150	46.6	27.3	58.6	9.5
1965-69	4,607	127	105	82	54.7	27.6	50.4	6.0**
1970-72	3,030	77	62	NA	55.4	25.4	45.9	NA
1976 Survey								
1945-49	555	43	42	69	50.6	77.5	153.2	38.8
1950-54	1,397	54	64	85	45.8	38.7	84.5	17.0
1955-59	3,060	105	86	93	55.0	34.3	62.4	8.2
1960-64	4,378	136	106	121	56.2	31.1	55.3	7.4
1965-69	4,885	144	82	90	63.7	29.5	46.3	4.9
1970-74	5,147	126	61	NA	67.4	24.5	36.3	NA

* 연령군 중앙률 임.

** 1965-68년 출생아에 한함.

Figure 2. Trend in Neonatal and Post-neonatal Mortality Rate per 1,000 Live Bir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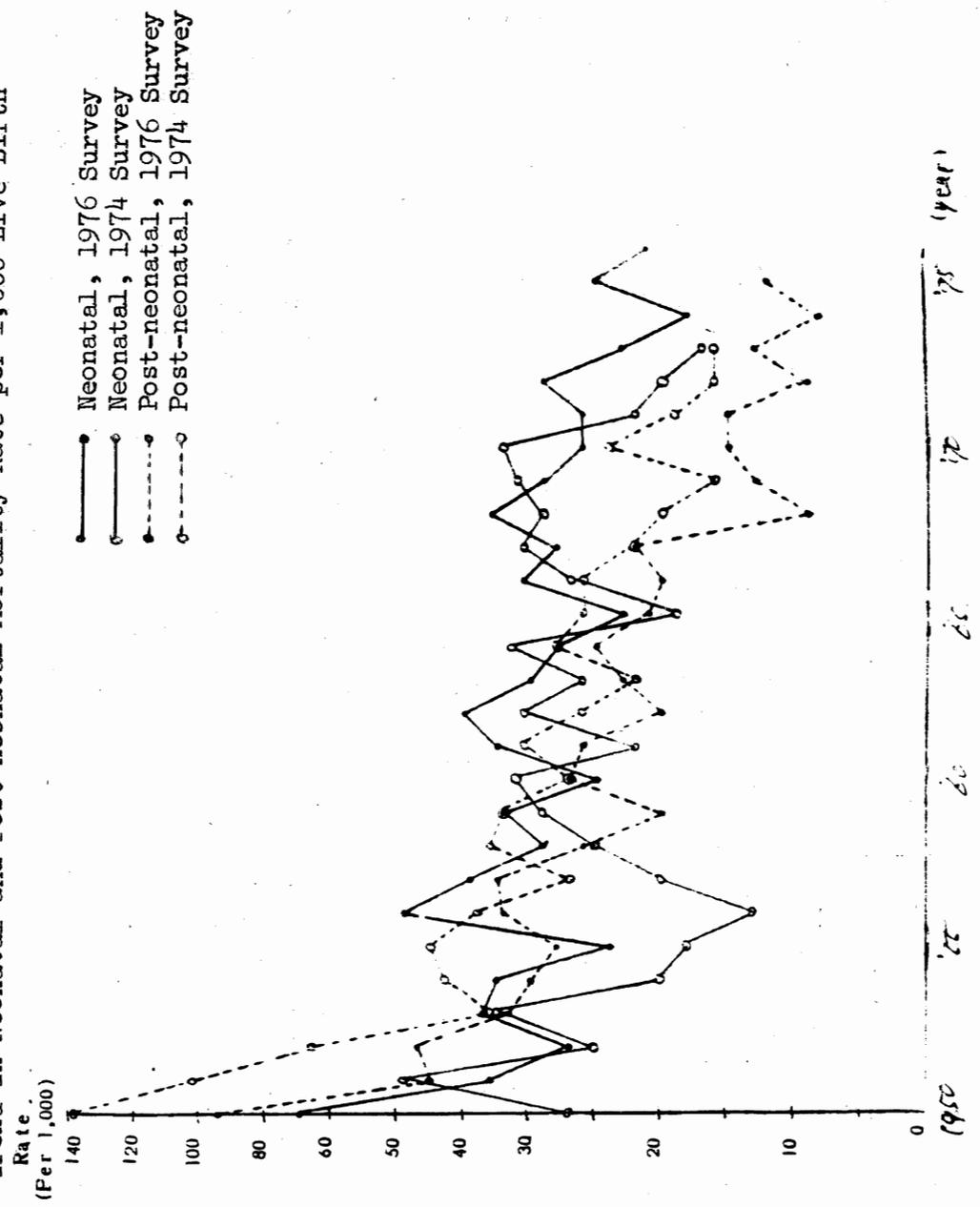


Table 4. Neonatal, Post-Neonatal, Infant and Childhood Mortality Rate by Age of Mother at the Birth and Year of the Birth, 1974 WFS, and 1976 Survey

Year of Birth	Age of Mother at Birth	No. of Births	Mortality Rate (per 1,000)			
			Neo-natal	Post-neonatal	Infant	Childhood (1-4 yr.)
<u>1974 WFS</u>						
Before 1955	Under 20	610	54.1	126.2	180.3	46.4
	20-24	1,532	32.6	90.1	122.7	35.7
	25+	583	34.3	60.0	94.3	16.1
1955-59	Under 25	1,274	22.0	47.1	69.1	12.8
	25-29	1,277	21.9	37.6	59.5	10.0
	30+	605	21.5	23.1	44.6	7.0
1960-64	Under 25	1,185	21.1	39.7	60.8	11.0
	25-29	1,614	31.0	23.5	54.5	10.0
	30-34	1,080	25.0	34.3	59.3	8.0
	35+	407	36.9	29.5	66.3	6.7
1965-69	Under 25	1,067	20.6	20.6	41.2	
	25-29	1,773	32.7	23.1	55.8	
	30-34	1,067	28.8	18.6	47.4	
	35+	691	23.2	31.8	55.0	
1970-72	Under 25	704	27.0	24.1	51.1	
	25-29	1,135	20.3	14.1	34.4	
	30-34	744	29.6	10.8	40.3	
	35+	447	29.1	47.0	76.1	
<u>1976 Survey</u>						
Before 1955	Under 20	633	67.9	80.6	96.3	32.6
	20-24	1,124	44.5	46.3	68.6	20.9
	25+	202	29.7	14.9	48.3	9.2
1955-59	Under 20	218	50.5	45.9	71.4	11.7
	20-24	1,399	39.3	29.3	94.5	8.8
	25-29	1,243	24.9	23.3	52.8	8.2
	30+	196	40.8	30.6	47.3	1.4

Table 4. (Continued)

Year of Birth	Age of Mother at Birth	No. of Births	Mortality Rate (per 1,000)			
			Neo- natal	Post- neonatal	Infant	Childhood (1-4 yrs.)
1960-64	Under 20	127	63.0	31.5	94.5	13.4
	20-24	1,364	28.6	24.2	52.8	5.9
	25-29	1,693	27.2	20.1	47.3	7.6
	30-34	1,056	36.9	30.3	67.2	8.8
	35+	135	22.2	22.2	44.4	5.9
1965-69	Under 20	99	20.2	30.3	50.5	10.9
	20-24	1,213	32.2	17.3	49.5	4.4
	25-29	1,815	25.9	15.4	41.3	3.9
	30-34	1,172	28.2	17.9	46.1	5.9
	35+	586	39.2	15.4	54.6	5.9
1970-74	Under 20	101	39.6	9.9	49.5	
	20-24	1,340	23.9	13.4	37.3	
	25-29	1,938	21.2	7.2	28.4	
	30-34	1,141	28.0	16.7	44.7	
	35+	627	27.1	14.4	41.5	

Table 5. Neonatal, Post-neonatal, Infant, and Childhood Mortality Rate by Birth Order and Year of the Birth, 1974 WFS and 1976 Survey

Year of Birth	Birth Order	No. of Births	Mortality Rate (per 1,000)			
			Neo-natal	Post-neonatal	Infant	Childhood (1-4 yrs.)
<u>1974 WFS</u>						
Before 1955	1st	1,211	35.5	102.4	137.9	34.3
	2nd	785	33.1	99.4	132.5	35.8
	3rd+	729	46.6	65.8	112.5	29.5
1955-59	1st	861	27.9	47.6	75.5	11.9
	2nd	735	15.0	35.4	50.3	8.4
	3rd+	1,049	18.1	35.3	53.4	10.3
1960-64	1st	846	22.5	34.3	56.7	10.9
	2nd	862	20.9	31.3	52.2	7.1
	3rd	819	24.4	17.1	41.5	9.7
	4th	640	29.7	40.6	70.3	11.2
	5th+	1,119	36.6	34.0	70.6	9.1
1965-69	1st	1,015	28.6	22.7	51.2	
	2nd	911	24.1	20.9	45.0	
	3rd	808	26.0	21.0	47.0	
	4th	671	26.8	22.4	49.2	
	5th+	1,202	30.8	25.8	56.6	
1970-74	1st	696	23.0	21.6	44.5	
	2nd	669	19.4	13.5	32.9	
	3-4th	978	27.6	15.3	42.9	
	5th+	687	30.6	33.5	64.0	
<u>1976 Survey</u>						
Before 1955	1st	1,037	54.0	64.6	118.6	23.5
	2nd	569	49.2	54.5	103.7	27.4
	3rd+	360	41.7	22.2	63.9	15.3
1955-59	1st	937	35.2	29.9	65.1	7.8
	2nd	831	33.7	20.5	54.2	9.1
	3rd	621	25.8	29.0	54.8	6.9
	4th	388	30.9	38.7	69.6	11.3
	5th+	281	56.9	28.5	85.4	5.9

Table 5. (Continued)

Year of Birth	Birth Order	No. of Births	Mortality Rate (per 1,000)			
			Neo- natal	Post- neonatal	Infant (1-4 yrs.)	Childhood (1-4 yrs.)
1960-64	1st	928	30.2	23.7	53.9	6.3
	2nd	937	22.4	26.7	49.1	5.1
	3rd	868	32.3	20.7	53.0	3.7
	4th	714	26.6	22.4	49.0	10.4
	5th+	925	42.2	27.0	69.2	9.2
1965-69	1st	1,052	36.1	14.3	50.4	4.0
	2nd	996	23.1	18.1	41.2	3.2
	3rd	881	26.1	15.9	42.0	4.5
	4th	716	16.8	22.3	39.1	4.0
	5th	551	38.1	12.7	50.8	7.3
	6th+	687	39.3	17.5	56.8	8.2
1970-74	1st	1,292	16.3	9.3	25.5	
	2nd	1,162	25.0	9.5	34.4	
	3rd	940	24.5	14.9	39.4	
	4th	697	27.3	10.0	37.3	
	5th	458	32.8	19.7	52.4	
	6th+	595	31.9	13.4	45.4	

Table 6. Neonatal, Post-neonatal, Infant and Childhood Mortality Rate by Birth Order, Age of Mother at the Birth and Year of the Birth, 1974 WFS and 1976 Survey

Year of Birth	Age of Mother at Birth	Birth Order	No. of Births	Mortality Rate (per 1,000)			Childhood (1-4 yrs.)	
				Neo-natal	Post-neonatal	Infant		
<u>1974 WFS</u>								
Before 1955	Under 20	1	526	47.5	129.3	176.8	43.3	
		2-3	84	95.2	107.1	202.4	67.8	
	20-24	1	642	28.0	87.2	115.3	29.4	
		2	594	26.9	101.0	127.9	39.0	
		3-5	296	54.1	74.3	128.4	43.2	
	25+	1-3	346	31.8	57.8	89.6	11.4	
		4-5	225	35.6	66.7	102.2	24.7	
	1955-64	15-19	1-2	180	22.2	38.9	61.1	9.0
			1	1,226	22.0	43.2	65.3	13.0
		20-24	2	791	19.0	45.5	64.5	8.9
3-5			256	23.4	43.0	66.4	18.4	
25-29		1	296	30.4	37.2	67.6	7.4	
		2	695	18.7	21.6	40.3	6.5	
	3	955	26.2	23.0	49.2	10.4		
	4	629	22.3	39.7	62.0	10.8		
	5+	316	53.8	41.1	94.9	18.1		

Table 5. (Continued 1)

Year of Birth	Age of Mother at Birth	Birth Order	No. of Births	Mortality Rate (per 1,000)			Childhood (1-4 yrs.)
				Neo- natal	Post- neonatal	Infant	
1965-72	30-34	1-2	108	37.0	9.3	46.3	4.9
		3	220	18.2	22.7	40.9	3.6
		4	383	13.0	36.6	49.6	8.4
		5+	963	27.0	32.2	59.2	8.7
		5	347	34.6	34.6	69.2	6.3
1965-72	20-24	1	1,006	21.9	23.9	45.7	
		2	512	11.7	13.7	25.4	
		3+	134	67.2	29.9	97.0	
		1	552	32.6	16.3	48.9	
1965-72	25-29	2	918	26.1	20.7	46.8	
		3	884	21.5	19.2	40.7	
		4+	554	36.1	21.7	57.8	
		1-2	158	33.0	19.0	57.0	
1965-72	30-34	3	331	42.3	12.1	54.4	
		4	538	18.6	16.7	35.3	
		5+	788	29.2	15.2	44.4	
		1-4	102	16.5	33.0	49.5	
1965-72	35+	5+	952	27.3	30.9	67.2	

Table 6. (Continued 2)

Year of Birth	Age of Mother at Birth	Birth Order	No. of Births	Mortality Rate (per 1,000)			Childhood (1-4 yrs.)
				Neo- natal	Post- neonatal	Infant	
<u>1976 Survey</u>							
Before 1955	Under 20	1	552	63.4	74.3	137.7	31.3
		2-3	82	97.6	122.0	219.5	42.4
	20-24	1	463	43.2	56.2	99.4	16.1
		2	448	44.6	42.4	87.1	27.1
		3-5	214	46.7	32.7	79.4	18.4
25+	1-3	144	20.8	20.8	41.7	5.5	
	4+	60	50.0	-	50.0	18.2	
1955-64	Under 20	1-2	332	57.2	39.2	96.4	11.9
		1	1,290	28.7	25.6	54.3	6.9
	20-24	2	1,050	37.1	25.7	62.9	7.0
		3-5	423	42.6	33.1	75.7	9.8
		1	250	24.0	24.0	48.0	3.2
25-29	2	625	11.2	16.0	27.2	7.5	
	3	955	22.0	18.8	40.8	6.1	
	4	736	32.6	25.8	58.4	11.8	
		5+	370	51.4	27.0	78.4	8.2

Table 6. (Continued 3)

Year of Birth	Age of Mother at Birth	Birth Order	No. of Births	Mortality Rate (per 1,000)			Childhood (1-4 yrs.)	
				Neo-natal	Post-natal	Infant		
1965-74	30+	1-3	247	32.4	36.4	68.8	3.3	
		4	309	19.4	25.9	45.3	7.7	
		5+	831	43.3	29.9	72.2	8.6	
	Under 20	1-2	191	31.4	20.9	52.4		
		1	1,470	25.9	12.9	38.8		
		2	830	27.7	13.3	41.0		
	20-24	3-5	253	39.5	35.6	75.1		
		1	616	24.4	3.2	27.6		
		2	1,113	22.5	12.6	35.0		
		3	1,156	20.8	10.4	31.1		
		4	652	19.9	16.9	36.8		
	25-29	5+	216	50.9	13.9	64.8		
		1-3	622	32.2	20.9	53.1		
		4	615	17.9	16.3	34.1		
		5	597	20.5	16.8	45.2		
		6+	479	35.5	14.6	50.1		
	30-34	1-4	225	17.8	8.9	26.7		
		5-6	504	33.7	11.9	45.6		
		7+	464	39.3	29.7	59.9		

Table 7. Neonatal, Post-neonatal, Infant and Childhood Mortality Rate by Month at the Birth and Year of the Birth, 1974 WFS and 1976 Survey

Year of Birth	Month at Birth	No. of Births	Mortality Rate (per 1,000)			
			Neo-natal	Post-neonatal	Infant (1-4 yrs.)	Childhood (1-4 yrs.)
<u>1974 WFS</u>						
Before 1955	12-2	639	36.0	81.4	117.4	29.1
	3-5	527	45.5	96.8	142.3	42.0
	6-8	581	43.0	105.0	148.0	34.0
	9-11	656	32.0	103.7	136.7	35.9
1955-64	12-2	1,961	21.4	34.2	55.6	11.2
	3-5	1,671	29.9	46.1	76.0	11.6
	6-8	1,676	26.3	26.3	52.5	10.1
	9-11	1,949	23.1	31.3	54.4	7.4
1965-72	12-2	2,021	23.3	20.8	44.0	
	3-5	1,844	33.6	23.9	57.5	
	6-8	1,806	24.4	18.8	43.2	
	9-11	1,838	25.6	23.4	49.0	
<u>1976 Survey</u>						
Before 1955	12-2	501	61.9	49.9	111.8	19.9
	3-5	377	47.7	45.1	92.8	24.5
	6-8	521	49.9	59.5	109.4	20.8
	9-11	565	42.5	58.4	100.9	27.0
1955-64	12-2	1,913	27.7	22.0	49.7	6.8
	3-5	1,709	37.4	26.9	64.4	7.6
	6-8	1,805	29.9	29.9	59.8	8.2
	9-11	2,003	34.4	25.0	59.4	7.8
1965-74	12-2	2,673	23.9	11.6	35.5	4.5*
	3-5	2,413	27.4	15.7	43.1	4.9*
	6-8	2,432	28.0	16.4	44.4	4.7*
	9-11	2,511	28.7	13.5	42.2	4.7*

* 1965-69년 출생아에 한함.

Table 8-1. Neonatal, Post-neonatal, Infant, and Childhood Mortality Rate by Sex of Child and Year of the Birth, 1974 WFS and 1976 Survey

Year of Birth	Sex of Child	No. of Births	Mortality Rate (per 1,000)			
			Neo-natal	Post-neonatal	Infant (1-4 yrs.)	Childhood
<u>1974 WFS</u>						
Before 1955	Male	1,413	44.6	88.5	133.1	34.2
	Female	1,312	30.5	95.3	125.8	32.5
1955-59	Male	1,657	26.0	37.4	63.4	10.4
	Female	1,499	17.3	40.0	57.4	10.7
1960-64	Male	2,211	30.3	31.2	61.5	8.4
	Female	2,075	24.1	31.3	55.4	10.5
1965-69	Male	2,357	31.4	20.4	51.8	
	Female	2,246	23.6	25.4	49.0	
1970-72	Male	1,550	29.0	19.4	48.4	
	Female	1,472	21.7	21.7	43.5	
<u>1976 Survey</u>						
Before 1955	Male	1,074	54.0	50.3	104.3	19.4
	Female	887	45.1	56.4	101.5	27.1
1955-59	Male	1,594	42.0	32.6	74.7	11.8
	Female	1,460	26.0	21.9	47.9	8.2
1960-64	Male	2,277	34.7	22.4	57.1	7.1
	Female	2,091	26.3	24.9	51.2	7.5
1965-69	Male	2,544	34.2	18.1	52.3	4.6
	Female	2,334	24.0	15.4	39.4	4.7
1970-74	Male	2,706	27.3	13.3	40.7	
	Female	2,439	21.3	10.3	31.6	

Table 8-2. Neonatal, Post-neonatal and Infant Mortality Rate by Sex of the Birth the Birth Order and the Birth Year, 1976 Survey

Year of Birth	Birth Order	Sex of Child	No. of Births	Mortality Rate (per 1000)		
				Neo-natal	Post-neonatal	Infant
Before 1955	1st	Male	580	50.0	58.6	108.6
		Female	455	59.3	70.3	129.7
	2nd+	Male	494	58.7	40.5	99.2
		Female	432	30.1	41.7	71.8
1955-64	1st	Male	976	37.9	26.6	64.5
		Female	887	27.1	27.1	54.1
	2nd-4th	Male	2,254	35.5	27.1	62.6
		Female	2,099	20.5	21.9	42.4
	5th+	Male	638	45.5	25.1	70.5
		Female	562	46.3	24.9	71.2
1965-74	1st	Male	1,231	28.4	16.2	44.7
		Female	1,113	21.6	6.3	27.9
	2nd-4th	Male	2,781	27.0	15.8	42.8
		Female	2,607	20.3	13.8	34.1
	5th+	Male	1,235	41.3	14.6	55.9
		Female	1,051	29.4	17.1	46.6

Table 9. Neonatal, Post-neonatal and Infant Mortality Rate by Residence and Birth Year, 1976 Survey

Year of Birth	Residence	No. of Births	Mortality Rate (per 1,000)			
			Neo-natal	Post-neonatal	Infant (1-4 yrs)	Childhood (1-4 yrs)
Before '55	Large cities*	525	43.8	43.8	87.6	20.1
	Other cities	269	40.9	70.6	111.5	16.2
	Rural	1,172	55.5	54.6	110.1	26.0
1955-59	Large cities	784	33.2	26.8	59.9	5.5
	Other cities	452	33.2	17.7	50.9	7.7
	Rural	1,824	35.1	31.3	66.3	9.6
1960-64	Large cities	1,053	19.9	24.7	44.6	6.3
	Other cities	684	27.8	19.0	46.8	7.0
	Rural	2,639	36.0	25.4	61.4	8.3
1965-69	Large cities	1,253	30.3	16.0	46.3	4.6
	Other cities	788	29.2	17.8	47.0	3.0
	Rural	2,844	29.2	16.9	46.1	5.5
1970-74	Large cities	1,509	18.6	8.0	26.5	
	Other cities	958	24.0	8.4	32.4	
	Rural	2,680	28.0	15.3	43.3	

* Seoul, Pusan, Daegu

Table 10-1. Neonatal, Post-neonatal and Infant Mortality Rate by Education of Mother and Father and Birth Year, 1976 Survey

Year of Birth	Education	No. of Births	Mortality Rate (per 1,000)			
			Neo-natal	Post-neonatal	Infant	Childhood (1-4 yrs)
<u>Education of Mother</u>						
Before 1955	No schooling	847	66.1	56.7	122.8	29.2
	Primary	897	43.5	54.6	98.1	19.9
	Middle+	222	18.0	40.5	58.6	13.5
1955-64	No schooling	2,239	36.2	31.3	67.4	10.4
	Primary	4,101	34.1	22.2	56.3	7.4
	Middle+	1,096	17.3	28.3	45.6	3.9
1965-74	No schooling	1,593	28.9	20.7	49.6	7.7*
	Primary	5,552	28.3	15.1	43.4	5.0*
	Middle	1,632	24.5	9.8	34.3	1.7*
	High+	1,255	21.5	8.0	29.5	2.3*
<u>Education of Father</u>						
Before 1955	Primary/below	1,310	60.3	47.3	107.6	26.3
	Middle+	635	26.8	69.3	96.1	16.2
1955-64	Primary/below	4,320	36.8	30.1	66.9	9.4
	Middle	1,306	27.6	19.1	46.7	8.9
	High+	1,764	24.9	20.4	45.4	4.8
1965-74	Primary/below	4,518	29.7	17.9	47.6	6.1*
	Middle	2,010	22.4	11.4	33.8	4.3*
	High	2,299	27.0	12.6	39.6	4.2*
	College+	1,188	24.4	8.4	32.8	1.6*

* Childhood mortality rate 1965-69 년 출생아에 한함.

Table 10-2. Neonatal, Post-neonatal, Infant and Childhood Mortality Rate by Education of Mothers, and Residence, 1976 Survey

(1965-74 Births only)

Re- sidence	Education of Mother	No. of Births	Mortality Rate (per 1,000)			
			Neo- natal	Post- neonatal	Infant	Childhood* (1-4 yrs)
Urban	No schooling	314	47.8	15.9	63.7	10.3
	Primary	2,119	26.4	12.7	39.2	4.5
	Middle	1,053	20.9	13.3	34.2	1.3
	High+	1,022	18.6	7.8	26.4	2.7
Rural	No schooling	1,279	24.2	21.9	46.1	7.2
	Primary	3,433	29.4	16.6	46.0	5.3
	Middle	579	31.1	3.5	34.5	2.5
	High+	233	34.3	8.6	42.9	-

* 1965-1969 년 출생아에 한함.

Table 10-3. Neonatal, Post-neonatal, and Infant Mortality Rate by Education of Mother, Birth Order and Birth Year, 1976 Survey

Year of Birth	Birth Order	Education of Mother	No. of Births	Mortality Rate			
				Neo-natal	Post-neonatal	Infant	
Before 1955	1st	No schooling	417	76.7	67.1	143.9	
		Primary	487	43.1	61.6	104.7	
		Middle+	133	22.6	67.7	90.2	
	2nd+	No schooling	430	55.8	46.5	102.3	
		Primary	410	43.9	46.3	90.2	
		Middle+	89	11.2	-	11.2	
1955-64	1st	No schooling	362	33.1	33.1	66.3	
		Primary	1,135	36.1	22.9	59.0	
		Middle+	368	21.7	32.6	54.3	
	2nd-4th	No schooling	1,313	33.5	29.7	63.2	
		Primary	2,423	29.7	22.3	52.0	
		Middle+	623	12.8	25.7	38.5	
	5th+	No schooling	564	44.3	33.7	78.0	
		Primary	539	50.0	20.4	70.5	
		Middle+	103	29.1	29.1	58.3	
	1965-74	1st	No schooling	103	68.0	29.1	97.1
			Primary	1,156	23.4	13.8	37.2
			Middle	576	22.6	6.9	29.5
			High+	509	23.6	7.9	31.4
		2nd-4th	No schooling	627	20.7	20.7	41.5
			Primary	3,127	25.3	16.0	41.3
Middle			934	25.7	12.8	38.5	
High+			704	18.5	7.1	25.6	
5th+		No schooling	863	30.1	19.7	49.8	
		Primary	1,264	40.3	14.2	54.6	
		Middle+	164	30.4	6.1	36.6	

Table 11. Neonatal, Post-neonatal and Infant, Mortality Rate by Premarital Work Experience of Mother, the Birth Order, and Year of the Birth, 1976 Survey

Year of Birth	Birth Order	Premarital Work Experience	No. of Births	Mortality Rate		
				Neo-natal	Post-neonatal	Infant
Before 1955	1st	None	959	55.3	63.6	118.9
		Worked	76	39.5	65.8	105.3
	2nd+	None	866	49.7	41.6	91.2
		Worked	62	-	48.4	48.4
1955-64	1st	None	1,642	34.7	26.8	61.5
		Worked	217	18.4	27.6	46.1
	2nd-4th	None	4,015	28.1	24.7	52.8
		Worked	334	29.9	29.9	59.9
	5th+	None	1,139	47.4	29.0	76.4
		Worked	65	15.4	-	15.4
1965-74	1st	None	1,581	28.5	12.7	41.1
		Worked	754	18.6	9.3	27.9
	2nd-4th	None	4,390	23.7	15.3	39.0
		Worked	981	25.5	12.2	37.7
	5th+	None	2,187	34.8	16.0	50.6
		Worked	101	59.4	9.9	69.3

Table 12. Neonatal, Post-neonatal, Infant, and Childhood Mortality Rate by Occupation of Father and Birth Year, 1976 Survey

Year of Birth	Occupation of Father	No. of Births	Mortality Rate (per 1,000)			
			Neo-natal	Post-neonatal	Infant	Childhood (1-4 yrs.)
Before 1955	White*	158	25.3	57.0	82.3	10.6
	Blue**	461	47.7	54.2	102.0	24.7
	Farm	800	51.3	56.3	107.5	24.2
	No working	276	58.0	47.1	105.1	18.9
1955-59	White	294	23.8	23.8	47.6	5.4
	Blue	874	48.1	29.7	77.8	7.2
	Farm	1,276	29.8	29.8	59.7	10.2
	No working	311	12.9	28.9	41.8	5.9
1960-64	White	444	29.3	27.0	56.3	6.7
	Blue	1,442	29.8	24.3	54.1	3.7
	Farm	1,861	30.1	23.6	53.7	10.4
	No working	346	37.6	14.5	52.0	8.5
1965-69	White	545	27.5	7.3	34.9	2.4
	Blue	1,912	31.9	19.4	51.3	4.6
	Farm	1,987	28.2	18.1	46.3	5.9
	No working	252	31.7	15.9	47.6	5.3
1970-74	White	727	15.1	5.5	20.6	
	Blue	2,417	25.2	11.6	36.8	
	Farm	1,714	27.6	14.0	41.4	
	No working	209	33.5	14.4	47.8	

*전분, 기술, 행정, 관리 및 사무직.

**판매 및 생산관련 노동직.

Table 13. Neonatal, Post-neonatal and Infant Mortality Rate by No. of Modern Object Owned and Birth Year, 1976 Survey

Year of Birth	No. of Object Owned*	No. of Births	Mortality Rate (per 1,000)			
			Neo-natal	Post-neonatal	Infant (1-4 yrs.)	Childhood
Before 1955	Low (0-3)	666	52.6	63.1	115.6	25.9
	Middle (4-7)	962	54.0	48.9	102.9	21.8
	High (8+)	277	36.1	43.3	79.4	18.3
1955-59	Low	1,092	33.9	30.2	64.1	11.8
	Middle	1,485	35.0	30.3	65.3	7.3
	High	400	22.5	17.5	40.0	2.6
1960-64	Low	1,600	33.8	31.3	65.0	8.3
	Middle	2,100	28.1	18.6	46.7	7.0
	High	545	25.7	20.2	45.9	6.3
1965-69	Low	1,827	28.5	19.2	47.6	6.6
	Middle	2,334	29.6	16.3	46.3	4.2
	High	560	32.1	10.7	42.9	2.3
1970-74	Low	1,324	26.9	13.7	40.6	
	Middle	2,562	23.8	10.1	34.0	
	High	589	17.0	6.8	23.8	

* 문화기구 소유갯수 (총 14개): 시계, 라디오, 자전거, 선풍기, 재봉틀, 전축, 텔레비존, 전기다리미, 가스렌즈, 카테타, 냉장고, 자동차, 피아노(오르간), 전화.

Table 14. Infant Mortality Rate by No. of Infant Deaths Preceded and by the Birth Year and the Birth Order, 1976 Survey

Birth Order	Birth Year	No Infant Deaths Preceded			One or More Infant Deaths Preceded		
		No. of Births	No. of Infant Deaths	IMR*	No. of Births	No. of Infant Deaths	IMR*
2	Before 1955	476	40	84	93	19	204
	1955-59	766	37	48	65	8	123
	1960-64	889	42	47	40	4	83
	1965-69	940	33	35	56	8	143
	1970-74	1,122	36	34	40	2	50
3	Before 1955	183	6	33	80	10	125
	1955-59	524	28	53	97	6	62
	1960-64	777	35	45	91	11	121
	1965-69	795	33	42	86	4	47
	1970-74	855	32	37	85	5	59
4	1955-59	287	17	59	101	10	99
	1960-64	578	23	40	135	12	89
	1965-69	605	18	30	111	10	90
	1970-74	586	17	29	111	9	81
5	1955-59	126	8	63	71	6	85
	1960-64	338	11	33	138	14	101
	1965-69	428	20	47	122	8	66
	1970-74	360	18	50	97	6	62
6	1960-64	176	10	57	98	8	82
	1965-69	234	5	21	122	9	74
	1970-74	213	6	28	36	6	70

* Infant mortality rate per 1,000 live births.

Table 15. Proportion of Women Experienced Infant Death by No. of Children Ever Born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Women, 1976 Survey

General Characteristics	No. of Children Ever Born					Total
	1-2	3	4	5	6+	
All Women	2.7	8.8	13.4	22.2	39.2	15.0
Age of Women						
Under 30	2.0	13.7	26.0	57.1	-	5.8
30-39	2.2	6.5	14.3	25.3	36.5	14.1
40-49	8.9	8.5	8.2	17.8	40.1	24.4
Age at First Marriage						
Under 20	3.2	12.2	9.2	18.5	39.2	21.4
20-24	2.3	6.6	14.3	25.2	37.7	10.6
25+	3.3	11.6	25.0	41.2	52.0	12.0
Experience of Pregnancy Wastage*						
Yes	1.4	8.1	11.6	25.0	44.5	16.2
No	3.5	9.8	15.9	19.4	33.8	13.8
Education of Women						
No schooling	5.3	14.3	10.9	20.5	40.5	27.1
Primary	3.6	9.0	13.1	21.6	38.2	15.8
Middle	1.4	6.5	15.8	29.9	33.9	8.7
High+	2.1	9.1	14.6	21.2	57.1	6.9
Premarital Work Duration						
No worked	3.5	8.3	12.8	21.9	39.2	17.2
1-35 (months)	0.8	10.1	19.6	20.0	62.5	8.6
36 (months) +	1.8	10.4	14.1	28.0	26.9	7.1
Occupation of Husband						
White	1.9	8.2	9.2	19.4	45.0	9.7
Blue	2.4	9.5	16.7	25.9	46.5	13.1
Farm	3.3	8.0	11.7	21.1	34.5	18.7
Not working	3.4	5.1	9.8	15.5	44.2	16.8

* Experience of Induced Abortion, spontaneous abortions or still births.

Table 16. Closed Birth Interval in Months by Survivorship of Infant, Year of Birth, and Birth Order, 1976 Survey

Year of Birth	Births Between	Survived		Died	
		No. of Births	Mean Interval	No. of Births	Mean Interval
Before 1955	1-2	887	38.5	120	26.8
	2-3	494	38.5	58	23.8
	3-4	238	36.4	15	25.6
	4-5	76	36.6	6	24.8
	5-6	12	35.0	1	50.0
	Total	1,707	38.1	201	27.3
1955-64	1-2	1,711	33.1	107	25.1
	2-3	1,613	34.1	88	24.8
	3-4	1,290	34.5	73	25.8
	4-5	880	34.9	58	22.5
	5-6	496	36.2	41	26.4
	Total	5,990	34.2	367	24.9
1965-74	1-2	1,993	27.5	80	20.1
	2-3	1,515	31.2	78	21.9
	3-4	1,073	32.9	65	23.3
	4-5	730	34.0	45	25.2
	5-6	473	32.3	37	23.7
	Total	5,784	30.8	305	22.4

Table 17. Closed Birth Intervals (in Months) by Fate of the Last Two Children, Year of Birth, and Birth Order, 1976 Survey

Interval i to i+1	Fate of the Births		Year of Birth					
	i-1	i	Before 1955		1955-64		1965-74	
			Number	Mean Interval	Number	Mean Interval	Number	Mean Interval
2-3	S	S	424	38.8	1,516	34.2	1,437	31.3
	D	S	70	36.3	27	33.7	78	31.1
	S	D	39	28.9	75	25.2	68	21.9
	D	D	19	28.4	13	22.2	10	21.9
3-4	S	S	199	35.9	1,216	34.7	1,009	33.1
	D	S	39	38.6	73	31.4	63	30.6
	S	D	12	27.0	66	25.1	61	24.0
	D	D	4	21.5	7	32.6	4	12.0
4-5	S	S	67	36.1	830	34.8	690	34.0
	D	S	9	40.4	49	35.6	40	33.0
	S	D	4	28.5	52	22.5	36	25.2
	D	D	2	17.5	6	22.8	9	25.3
5-6	S	S	11	36.0	457	36.4	445	33.1
	D	S	1	24.0	39	33.4	28	30.8
	S	D	1	50.0	29	27.1	35	23.0
	D	D	0	-	12	24.5	2	22.0

S : Survived at least 1 year or more.
D : Infant Death.

Table 18. Parity Progression Ratio by Survivorship of Infant, Year of Birth, and Birth Order, 1976 Survey

Year or Birth	Birth Order	Survived		Died	
		No. of Births	Progression Ratio	No. of Births	Progression Ratio
Before 1955	1st	914	97.0	123	97.6
	2nd	510	96.9	59	98.3
	3rd	247	96.4	16	100.0
	4th	77	98.7	6	100.0
	5th	12	100.0	1	100.0
	Total	1,760	97.0	205	98.0
1955-64	1st	1,754	97.5	111	96.4
	2nd	1,677	96.2	91	96.7
	3rd	1,411	91.4	79	92.4
	4th	1,043	84.4	62	93.5
	5th	638	77.7	43	95.3
	Total	6,523	91.8	386	95.1
1965-74	1st	2,259	88.2	86	93.0
	2nd	2,076	73.0	81	96.3
	3rd	1,750	61.3	74	87.8
	4th	1,359	53.7	54	83.3
	5th	957	49.4	52	71.2
	Total	8,401	68.8	347	87.9

Table 19. Parity Progression Ratios in Per Cent by Fate of the Last Two Infants, Year of Birth, and Birth Order, 1976 Survey

Parity Progression from i to i+1	Fate of the Birth i-1 i	Year of the ith Birth					
		Before 1955		1955-64		1965-74	
		Number	PPR i to i+1	Number	PPR i to i+1	Number	PPR i to i+1
2-3	S	437	97.0	1,577	96.1	1,990	72.2
	D	73	95.9	100	97.0	86	90.7
	S	40	97.5	78	96.2	71	95.8
	D	19	100.0	13	100.0	10	100.0
3-4	S	208	95.7	1,337	90.9	1,669	60.5
	D	39	100.0	73	100.0	80	78.8
	S	12	100.0	70	94.3	70	87.1
	D	4	100.0	9	77.8	4	100.0
4-5	S	68	98.5	987	84.1	1,291	53.4
	D	9	100.0	54	90.7	68	58.8
	S	4	100.0	56	92.9	43	83.7
	D	2	100.0	6	100.0	11	81.8
5-6	S	11	100.0	597	76.5	909	49.0
	D	1	100.0	41	95.1	48	58.3
	S	1	100.0	31	93.5	50	70.0
	D	0	-	12	100.0	2	100.0

Table 20. Mean Number of Living Children, Children Ever Born, and Pregnancies Experienced of Women Who Having at Least one or More Children Ever Born by Experience of Infant Death, by 1976 Survey

Age of Women	Mean Numbers		
	Experience of Infant Death		
	Yes (N)	No (N)	Total (N)
Living Children			
Under 25	1.33 (24)	1.31 (433)	1.32 (457)
25-29	2.22 (59)	2.08 (1,073)	2.09 (1,132)
30-34	3.15 (103)	3.11 (1,020)	3.11 (1,123)
35-39	3.80 (170)	3.85 (949)	3.84 (1,119)
40-44	4.76 (168)	4.42 (800)	4.48 (968)
45-49	4.84 (148)	4.66 (562)	4.70 (710)
All ages	3.94 (672)	3.26 (4,837)	3.34 (5,509)
Children Ever Born			
Under 25	2.33 (24)	1.32 (433)	1.38 (457)
25-29	3.20 (59)	2.09 (1,073)	2.15 (1,132)
30-34	4.23 (103)	3.15 (1,020)	3.25 (1,123)
35-39	4.94 (170)	3.95 (949)	4.10 (1,119)
40-44	5.98 (168)	4.60 (800)	4.84 (968)
45-49	6.30 (148)	5.03 (562)	5.30 (710)
All ages	5.15 (672)	3.37 (4,837)	3.58 (5,509)
Pregnancies Experienced			
Under 25	3.04 (24)	1.81 (433)	1.88 (457)
25-29	4.10 (59)	2.93 (1,073)	2.99 (1,132)
30-34	5.54 (103)	4.51 (1,020)	4.60 (1,123)
35-39	6.55 (170)	5.61 (949)	5.76 (1,119)
40-44	7.51 (168)	6.21 (800)	6.43 (968)
45-49	7.47 (148)	6.10 (562)	6.39 (710)
All ages	6.50 (672)	4.60 (4,837)	4.83 (5,509)

참 고 문 헌

- 수도치부, 조선주민의 생명표, 1938.
- 최희영, 조선주민의 생명표, 조선의 학회잡지, 1939.
- 윤덕진, 한국 농촌의 영아사망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1960.
- 허 정, 농촌영아사망율에 관여하는 사회 생물학적 제 요인
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59.
- 박형종,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영아사망에 관한연구,
서울의대잡지, 1962.
- 원명수, 도시지역의 사망실태에 관한연구, 대한의학협회지,
1963.
- 박병태, 최병목, 권호연, 197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계획
평가조사, 가족계획연구원, 1978.
- 한성현, 이화영, " 영아사망율이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 ",
가족계획논집, 가족계획연구원, 1979.
- 박재영, 출생.사망수준의 추정과 경제.사회적 변수와의 관계
에 관한연구,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가족계획연구원, 1980.
- 최인현, 공세권, 이영훈, 최근 한국의 사망추이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77.
- Park, Chai Bin, "Statistical Observation on Deaths and
Death Causes of Koreans," Statistical Reporter,
Vol. 3, 1961.
- Park, Chai Bin, Seung Hyun Han, and Minja Kim Choe,
The effect of infant death on subsequent fertility
in Korea and the role of family planning,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979.
- SAM SHAPIRO, EDWARD R. SCHLESINGER, ROBERT E. L. NESBITT,
JR., Infant, Perinatal, Maternal, and Childhood
Mortality in the United Stat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 Yun, Duk Jin, Infant Mortality and the Cause of Death in
Korean Children,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Vol. 8, 1965..

Kim, Kyoung Sik, Studies on Birth, Death and Cause of Death of the Inhabitants of Korean Rural, Mountainous and Island Area, Journal of Rural Health, Vol. 3, 1969.

Lee, Sang Jai, Moo Hee Oh and Kyung Za Kim; Studies on Birth, Death and the Cause of Death in Nam Won Village Town, Cholla-Namdo, The Korean Medical Journal, Vol. 13, 1968.

Moon, Ok Ryun, Jae Woong Hong, Health Services Outcome Data, Journal of Family Planning Studies, Vol. 3, KIFP, 1976.